

# 출판문화 도약 이를 획기적 분수령

## 93년은 '책의 해'...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내세워

지난 8월26일 내린 문화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 93년이 '책의 해'로 선정돼 출판계는 물론 유관업계까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독서성장을 반등시킬 호재로 판단하고 큰 기대와 함께 구체적인 행사계획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근거해 문화부가 91년을 연극·영화의 해로, 92년을 춤의 해로 결정한 데 이어 책의 해가 3순위가 된 것은 "책은 모든 문화를 반영하는 거꾸집과 같은 것"이란 출판계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 선정 막바지까지 국악계와 경합을 벌였지만, 21세기가 정보화시대여서 그 어느 때보다 책의 기능이 중시된다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내년은 주자소에서 처음 금속활자로 만든 계미자본을 발간(1403)한 지 590주년인 해이고, 조선말엽 정부가 박문국을 설치해 신식 활자로 「한성순보」를 발행한 이후 110년이 되는 연대 기적 의미가 깊다는 점도 감안돼서이다.

### '독서장려법 제정' 등 기본사업 마련

내년을 책의 해로 삼자는 의견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6월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던 제14회 출판경영자세미나에서 출판협회 김낙준회장이 이수정 문화부장관에게 이를 정식건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으며, 출협은 7월24일 문화부 어문출판국에 '93년 문화예술의 해 선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출판계의 건의에 따라 문화부는, 문화 예술계 인사 36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년을 책의 해로 최종 결정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책의 해가 결정된 8월26일 긴급회장단회의를 개최한 김낙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책의 해 사업실행위원구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즉, 출판·인쇄·제본·서점·도서관 등 책과 관련된 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기획사업단을 출협내에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며, 사업계획은 일과성 위주의 행사보다는 책문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의 차원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 출협은 이미 문화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책의 현장' 제정 선포 ▲책의 해 기념 대통령 메시지 발표 ▲독서장려법 제정 ▲국제 심포지움 개최 ▲출판 유통현대화 사업 ▲독서운동 전개 ▲책의 역사 전시회 개최 ▲집중기획 다큐멘

축제의 요소가 많은 '책의 해'

행사를 지속적인 독서품과 출판계의

장기적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행사위주의 사업보다는 보다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기념사업이

요구되며, 특히 전 출판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과제 가운데

하나임에 분명하다.

터리 '우리의 미래 책속에 있다' 방영 ▲책보내기 사업전개 등의 기본사업을 제시했다.

책의 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방향을 결정할 조직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지난 9월21일로 출협의 제10차 상무회의에서 조직위원회 위원 인선과 제1차회의의 일정을 확정했으며, 이어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7일 특별위원회는 1차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한편,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김낙준 출협회장(금성출판사 대표)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윤형두(출협부회장, 범우사 대표)씨와 박계홍(한국도서관협회장)씨를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모두 12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먼저 책의 해를 통해 지향하는 기본골격은 첫째 뉴미디어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화사회의 속에서의 책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국민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둘째 현재의 낙후된 도서유통체계와 교육 및 도서관의 기능마비에 대한 개선은 물론 다양한 책전달 채널의 개발을 독자들에게 재인식시키는 것, 셋째로는 한국출판의 국제화를 시급히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잠정적으로나마 세운 기념사업은 대강 이렇다.

국민을 위한 책의 봉사단 측면에서 기획된 책정보 전화인 '책을 찾아 드립니다' 전화 개설과 기본도서조차 장서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지원을 위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운동, 그리고 책의 흐름을 바꿔보는, 예컨대 사회과학도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아동도서는 국민학교나 수퍼마켓 등의 새로운 장소에서 적극 판매하지는 운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책의 해 제정을 계기로 출판계는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책의 대량보급이 이뤄진 이후 어려워진 작가와 독자와의 대면의 기회를 지역별로 갖도록 하는 이벤트와 꾸준히 출판계가 펼쳐오고 있는 '소련 중국동포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의 영역을 넓혀 교도소나 고아원 등의 시설에도 책기증 운동을 확산한다는 것 등이 기획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의전적인 행사로는 책의 현장 제정과 '책의 문화총서' 발간, 책의 역사유적지와 사적지 등을 찾아내는 '우리 땅에서 책의 역사를 찾는다', 그리고 책의 의미를 확대하는 전시와 퍼포먼스로는 기왕의 문화공간을 찾아가 행사를 펼치고, 각종 문화행사의 성격에 맞는 도서를 행사장에 전시하는 기획도 있으며, 전국순회도서전 및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관계도서전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책의 해를 기념하는 연구사업도 병행할 예정인데, 실질적 항목으로 짜여질 출판발전 10개년 마스터플랜 작성과 현안별 워크 샷을 가능한 월 1회씩 실시한다는 안도 준비돼 있다.

### 일과성 위주 행사 극복이 남은 과제

특별위원회가 구상중인 계획 가운데 하나는 우리 출판의 국제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인데, 국제도서위원회와 국제도서협회 등과 같은 국제조직과 연계해 멀티 미디어시대에 있어 선진국출판과 저개발국 출판의 격차를 조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개최이유로 들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대전 EXPO 개최일정에 맞춰 한국의 금속활자 특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에 우리의 유구한 출판문화를 적극 홍보한다는 아이템도 들어 있다. 더불어 각국 공공도서관에 영문판 한국도서목록을 배포해 우리 출판물을 국제무대에 소개하지는 프로그램

램도 있다. 이런 각종 행사를 널리 알리는 홍보전략으로는 책의 해 기념로고를 도서상품권과 서점의 포장지, 우표와 담배 등에 표시해 독자들에게 알리며, 책의 해 사업계획발표회를 갖고, 각 방송매체를 통해 선전한다는 게 골자. 표어와 기념로고는 이미 이날 회의를 통해 심사됐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약 10억여원으로 예상되는 문예진흥기금지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바람직하지 못한 출판물의 베스트셀러화와 독서의욕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 서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는 출판계로서는 책의 해 선정이야말로 가뭄끝의 단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얼만큼의 성과를 얻느냐는 온전히 출판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타의 공영문화분야와는 달리 출판은 이벤트성이 부족하다. 축제의 요소가 다분한 이 행사를 지속적인 독서품과 출판계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시키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님은 물론이다. 특별위원회의 회의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6천개가 넘는 개별 출판사의 참여의 질과 폭을 넓히기 위한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출판계의 잔치를 다른 장르와의 협력체제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출판계의 어려움을 독자들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려온 그동안의 생각을 버리고, '출판계 체질개선의 원년'으로 93년 책의 해를 삼으면 한다. 책의 해는 내년 한해가 아니라 매해 여야 하는 이유에서 그렇다.

—최태원 기자